

한국어 번역 성경에 나타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영향¹⁾

민영진* 전무용**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한국어 초창기 번역에 중국어 번역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초기 한국어 성경의 개정 과정에 일본어 번역 성서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필 것이다. 초기의 한국어 성경은 중국과 일본에서 번역이 되어서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 번역들은 위원회의 번역이 아니라 개인역들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초기의 개인역들은 성경의 중요한 용어들을 번역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한다. 신약전서와 구약전서의 특수 용어들, 예를 들면 *theos/ elohim*(God), *pneuma/ruah*(spirit), *baptisma*(baptism), *pesah*(passover) 등의 단어들의 적절한 대응어 선정에서 깊이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theos/ elohim*의 대응어가 여러 가지로 시도되었다. 이 글에서는 *theos/ elohim*의 대응어가 어떻게 한국 고유의 “하느님 하느님”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1912년부터 1937년까지 이루어진 한국어 구역의 개정 과정에서 개정자들이 일본어 번역을 참고한 것이 눈에 띄어, 한국어와 일본어를 다룰 수 있는 학생에게 그 영향 관계를 조사하게 한 일이 있다. 여기서는 그 연구 결과도 부분적으로 소개될 것이다.

2.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

2.1. 지리적인 환경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북경에서 서울까지의 비행 거리는 1,184킬로미터이고, 비행기로 2시간 비행 거리이다. 서울에

* 대한성서공회 총무

**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부장

1) 이 원고는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성서 포럼 2006”에서 영어로 발표했던 논문이다.

서 동경까지의 비행 거리는 1,449킬로미터이고, 비행기로 2시간 10분 비행 거리이다. 세 나라의 수도를 잇는 비행거리는 겨우 2,633킬로미터로서, 이러한 지리적 환경은 세 나라 국민들 사이의 빈번한 왕래를 가능하게 했고, 이러한 접촉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한국은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 두 나라로부터 받는 영향이 나머지 두 나라가 이웃 나라로부터 받는 영향의 정도보다 더 컸다.

2.2. 역사적인 환경

1990년 자료에 의하면 중국 전체 인구는 11.3억 명이며, 이중 다수민족인 한족이 92%를 차지하고 나머지 8%가 기타 민족으로 약 9천만 명에 이른다. 중국에는 약 192만 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으며, 이는 소수민족 인구의 2%에 해당하며, 전체 중국 인구의 0.16%에 불과한 매우 적은 수이다. 1982년 자료에 의하면 중국 조선족 중 98% 이상이 동북 삼성(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3성을 말함)에 살며, 43%에 가까운 82만 명이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사는데 이는 자치주 전체 인구 208만 명의 약 40%를 차지한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 인구의 특성은 그 분포의 집중성에 있으며, 조선족 대부분이 동북지방에, 그리고 그 반에 가까운 수가 연변 지구에 산다고 볼 수 있다. 연변 조선족의 반수 정도가 정길, 용정, 화룡 3개 시에 살고 있다.²⁾ 현재 일본에도 한인 교민이 일본 전역에 18만 명이 살고 있다.³⁾ 이들은 대다수가 일제강점기 때 이주한 이들의 후손들이다. 현재 한국에는 21,806 명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다. 대다수가 산동성 화교이며, 90% 이상은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교민이다.⁴⁾ 한국인과 결혼했던 일본인 여성들 약간 명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하여 중국인들과 일본인들과 한국인들 사이에 국제결혼도 이루어지고 있다.

2.3. 언어적 환경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다. 중국어가 SVO 형의 언어인데 비해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SOV 형의 언어다. 그렇지만, 크게 한자 문화권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 일본 모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한문으로 문자생활을 해 왔다. 한국과 일본은 일상용어에 있어서 한자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

2) 장재춘,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 취락 및 주거에 관한 조사연구』(울산: 울산대학교출판부, 1995).

3) http://www.haninhe.com/korean/sub_engaku.php

4) http://www.inchinaday.com/2005/town/town_2.html

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전체 어휘 중에서 한자어의 비중이 50%가 넘는다고 한다.⁵⁾ 이러한 면에서 일본어도 한국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⁶⁾ 다만 한국은 한자어를 직접 받아들여서 음독을 하였고, 일본은 대부분 훈독을 하는 방법으로 한자어를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한자어를 받아들이면서도 일본어가 함께 살아남았고,⁷⁾ 한국의 경우에는 한자어와 고유어가 경쟁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한자어가 살아남고 고유어가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용어들을 한자어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같다. 그래서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아도 한자로 적힌 글을 보면 대강 의사를 통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Bible Society를 대만이나 홍콩에서는 성경공회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성서공회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성서협회라고 한다. Bible을 중국에서는 성경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성서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성경과 성서를 둘 다 사용한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은 불경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주요 종교가 되면서 성경이라는 용어를 기독교가 사유화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2.4. 문화적 환경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한자문화권의 외곽에 있으면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이 지정학적 거리와, 언어와 문화의 독자성이, 한국과 일본을,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한자문화권의 영향 안에 있게 했다. 19세기까지 한국의 지식인들은 한자어로 기록된 서적들로부터 많은 정보와 문화를 습득해 왔다. 유교가 한자어를 전파하였으며, 불교가 한자어로 번역된 경전을 통해서 전파되었으며, 그 밖의 많은 고급 정보들이 한자어를 통해서 유통이 되었다. 중세 시대의 라틴어처럼, 한국에서 한문은 고급문화를 담는 그릇으로 역할을 해 왔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 번역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난다. 메이지 역 성서는 성경 각 권의 책 이름을 중국어 성경을 따르고 있다. 구약의 경우에는 대표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신약의 경우에는 브리지만 결벚슨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한국어 성경은 중국어 성경의 책 이름을 모두 그대로 따르지는 않지만, “창세기, 민수기” 등과 같이, 적지 않은 책 이름을 중국어 번역을

5) 한글학회, 『큰사전』(서울: 을유문화사, 1957), 한자어 비율을 52.11%로 보고하고 있다. 이희승, 『국어대사전』(서울: 민중서림, 1961), 한자어 비율을 69.32%로 보고하고 있다. 1983년 7월 28일, <중앙일보> 1면을 조사하여 한자어 비율이 74.44%라고 한 보고가 있다.

6) 일본국립국어연구소, 田中章夫, 1988년, 신문 한 면 조사. 신문 어휘를 조사하여 한자어가 44.4%였다고 보고하였다.

7) “복음(福音)[ふくいん]”처럼 음독하기도 했고, “신(神)[かみ]”처럼 훈독하기도 했다.

따르고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이러한 한자문화권의 특성은 성경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들을 한자어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토대가 된다. 66권의 각 책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사용되는 많은 용어들 속에 많은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다. 중요한 용어들을 한자어에서 많이 받아들인 것은 한국과 일본의 성서 번역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3. 중국 일본 한국의 중요 번역 성경

다음 도표는 중국⁹⁾과 일본¹⁰⁾과 한국¹¹⁾ 세 나라의 성경 번역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주요 번역의 발행 연도 대조표다. 중국어 성경은 한국과 일본의 성경 번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신약과 구약과 성경전서를 중심으로 표를 만들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영향권 안에 있었던 일부 단편 성서와 성경들을 중심으로 표를 만들었다. 이 대조표는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성경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초기 한국어 번역 성서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연대	중국어 역본	일본어 역본	한국어 역본
1810	모리슨 역 『新約』 (Marshman, 1814)		
1820	마쉬만-라샤르 역 『聖經全書』, Marshman/Lassar, 1822)		

8) 예를 들면, 創世記, 民數記, 申命記, 士師記, 列王記, 歷代, 詩篇, 箴言, 傳道書, 雅歌, 哀歌, 馬太福音, 馬加福音, 使徒行傳, 啓示錄/默示錄

9) 許牧世, 『經與譯經』(香港: 基督教文藝出版社, 1983);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왕대일 역음,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주석과 성서 번역』, (서울: 기독교서회, 2002), 413-499; Jost Oliver Zetzsche, *The Bible in China: The History of the Union Version or The Culmination of Protestant Missionary Bible Translation in China* (Nettetal: Steyler Verl., 1999); Graham Ogden, “Translations of the Bible in Asia,” Roger Omanson, ed., *Discover the Bible: A Manual for Biblical Studies* (Colombia: United Bible Societies, 2001).

10) 門脇 清, 大柴 恒, 『日本語聖書翻譯史』(東京: 新教出版社, 1983); 海老澤有道, 『日本の聖書-聖書和譯の歴史』, 講談社學術文庫 (東京: 株式會社 講談社, 1989); *The Panoramic Bible* (Tokyo: JBS, 2005); “*The Dead See Scrolls and the World of the Bible*” (The Tokyo Great Bible Exhibition Executive Committee, 2000).

11)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연대	중국어 역본	일본어 역본	한국어 역본
	모리슨-밀른 역 『新約』(『神天聖書』, Morrison/Milne, 1823)		
1830-1840		『約翰福音之傳』(Karl Gützlaff, 1837)	
		『約翰上中下書』(Karl Gützlaff, 1837)	
	귀츨라프 역 (『舊遺詔聖書』 구약, Gützlaff, 1838)		
	미드허스트-귀츨라프 역 (『救世主耶穌新遺詔書』, 신약, Medhurst/Gützlaff, 1839)		
1850	문리대표본 (<i>The Delegates' Version</i>) (『新約全書』, 1852; 『舊約全書』, 1854)		
		『路加傳福音書』, 『約翰傳福音書』, 『聖差言行傳』(B. J. Bettelheim, 1855)	
	브리지만 켈벗슨 역(『耶穌基督救世主新約全書』, Bridgman/Culbertson, 1859)	『約翰之福音傳』, 『馬太福音傳』, 『創世記』(S. W. Williams, 1859)	
1860	브리지만 켈벗슨 역(『舊約』, (Bridgman/ Culbertson, 1863)		
1870	북경위원회역 (『新約』, 관화체, 1872)	『馬太傳福音書』(J. Goble, 1871)	
	쉐레쉐브스키/북경위원회역(『聖經全書』, 관화체, Schereschewsky, 1878)	『訓點新約全書』(1879)	
1880-1890		메이지 역 『新約全書』(聖書翻譯委員會, 1880)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J. Ross, 1882)
			『예수성교 요한니복음 전서』(J. Ross, 1882)

연대	중국어 역본	일본어 역본	한국어 역본
			『예수성교성서 누가 복음데자헝적』 (J. Ross, 1883)
			『懸吐漢韓聖經』 (이수정, 1883)
			『신약마가전복음서 언회』 (이수정, 1885)
		메이지 역 『舊約全書』, 『舊新約全書』(성서번역위원회, 1887)	『예수성교전서』 (J. Ross, 1887)
1900-1920	文理和合本(Wenli Union Version) (『聖經全書』, 1919)	대정역 (『新約』, 1917)	『신약전서』(1900), 『구약전서』(1911), 『성경전서』(1911)
1930			『성경 개역』(1938)

4. 초기 한국어 번역에 미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영향

초기 한국어 성서 번역은 중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다. 중국에서 번역된 로스 역(1887) 성경은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일본에서 번역된 이수정 역(1883, 1885) 성경은 일본어 성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 두 성경 모두 근원적으로는 두 가지 중국어 문리역 성경의 영향을 받는다. 하나는 대표자역본(Delegates' Version)이라고 부르는 『舊新約全書』(1854)이고, 또 하나는 브리지만(Elijah C. Bridgman)과 컬버튼(Michael S. Culbertson)이 번역한 『舊新約全書』(1863)이다.

4.1. 『예수성교전서』(1887)의 저본

1883년 1월 24일에 로스가 라이트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예수성교전서』의 저본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고전 한문에 능통한 한국 학자가 문리역본 복음서와 구어체 역본을 보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로스 목사가 그 번역 원고를 그리스어 개역본¹²⁾과 영어 개역본¹³⁾과 비교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를

12) Edwin Palmer, *H KAINH DIAQHKH.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zed Version* (Oxford: Clarendon Press, 1881).

13) *The New Testament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Translated out of the Greek: Being the Version Set Forth A.D. 1611, Compared with the Most Ancient Authorities and Revised, A.D. 1881,*

대조하여 수정하였다.¹⁴⁾

로스의 말대로라면, 한국인 학자에게 구어체 역본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전 한문에 능숙한 한국 학자는 당연히 고전 한문 문리역을 가지고 번역을 하였을 것이다.¹⁵⁾ 한국인 학자가 보았을 한문 역본에는 대표역본과 브리지만 켈벗슨 역이 있다. 다음 대표역본 한문 본문과 브리지만 켈벗슨 역 한문 본문과 『예수성교전서』 한국어 본문을 함께 읽어 보자. 한국어 본문의 괄호 안의 한자어는 원문에 없는 것으로, 이해를 돕고자 필자가 첨가한 것이다.

대표역본(1852) 눅 2:1-4

當時,該撒亞古土督,詔天下人登籍,居里扭爲叙利亞方伯,此籍始行焉,衆往登籍,各歸其邑, 約瑟乃大關族系,以故去加利利拿撒勒邑,詣猶太,至大關之邑,名伯利恆,¹⁶⁾

브리지만 켈벗슨 역(1859) 눅 2:1-4

當時有詔由該撒亞古土督而出令天下人咸登籍居里扭爲叙利亞方伯此籍始行焉衆往登籍各歸己邑約瑟亦由加利利拿撒勒上猶太至大關之邑名伯利恆蓋彼屬大關宗族也¹⁷⁾

『예수성교전서』(1887) 눅 2:1-4

맛참 그씨에 기살 아구스토가 텃하 사람의게 죄세히여 호적을 올니는디 쿠레노는 수리아 방벽이 되여실 씨에 이 호적이 처음으로 흥히디 못 사람이 가서 호적을 올니고 각각 그 고을노 돌아가는디 요섭은 다빗의 족보라 고로 가니년의 나살잇노부터 유디에 나아가 다빗의 고을에 날으니 일흠은 벳니엄 이라

로스 역인 『예수성교전서』(1887)를 두 한문본과 비교해 볼 때에, 한국어 누가복음의 번역이 내용상 명백하게 대표역본과 번역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리지만 켈벗슨 역과 대표역본의 번역이 차이가 나는 4하반절 부분이 명백하게 대표역본과 같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에서는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어

C. J. Ellicott, et 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81).

14)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64-65.

15) 참조, 서수량, “초기 한글 성경 『예수성교전서』의 중국어 대본에 대한 연구,” 석사논문 (한국성서대학교대학원, 2002).

16) 『文理貫珠 舊新約聖書(Delegates Version)』 (Shanghai: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20). 이 책은 1855년판 대표역본 문리역 성서의 1920년판이다.

17) 『舊新約全書(Classical Bible)』, Bridgeman and Culbertson's Version (American Bible Society, 福州美華書局活版, 1896).

음역에 중국어 음역을 붙여 주었지만, 한국어 음역은 중국어의 음가를 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 원음에서 한국어로 직접 음역하고 있다.¹⁸⁾

4.2. 『예수성교전서』(1887)의 대응어 선정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낱말은 “하나님”이었다. 『예수성교전서』의 중요한 업적은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한국어 번역어를 선택했던 점이다. 특히 “하느님”, “하느님”이라는 한국어어를 신명으로 채택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결정이었다.¹⁹⁾ “상테(上帝, 하늘의 임금, 초월적 존재)”라는 말은 조선의 학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었던 이름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신”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귀신’과 같은 말로 사용되었고, 홀로는 잘 쓰이지 않았다. “텐쥬(天主, 하늘의 주인)”라는 말을 발견하였지만, 언중에게는 생소한 말이었다. 그래서 로스 팀은 끝내 조선에서 널리 쓰여 오던 “하나님”을 선택하였다.²⁰⁾ 이 이름은 정서법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 또는 ‘하느님’으로 표기되어 오면서, 한국 교회에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리스어 “네스테이아(νηστεία, 행 14:23)”를 중국어 대표역본이 “금식”이라고 번역한 것에 비해 로스 역(1887)이 “지계(齋戒)”라고 번역한 것은 꽤 흥미 있다. 백년 전의 조선인들에게 음식을 먹지 않는 일이 종교적으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지계”라는 말은 “금식”이 가지는 종교적인 의미를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계”란 종교적 의식 따위를 치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함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스어 “밥티조(βαπτίζω)”를 중국어 대표역본이 “세례”로 번역한 것에 비해 로스 역에서는 “밥팀례”로 음역한 것도 흥미 있는 번역이다. 이미 이 용어는 중국어 성경 번역 때, 세례로 해야 할지 침례로 해야 할지 논란이 되던 용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용어였기 때문에 음역을 한 것 같다.

4.3. 이수정의 『懸吐漢韓新約』(1883)²¹⁾의 저본

18) 1882년 본문은 “아고사독(亞古士督)”과 같이 한문성경의 음가를 그냥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일부 보이지만, 나머지는 “요섭(約瑟)”과 같이 원음의 음가를 반영하였다. “約瑟”의 한국어 음가는 “약슬”이고, 중국어 음가는 “yaose”이다.

19) 이환진, 전무용, 서원석, “예수성교전서”, 『성서한국』 제 33권 1호, 서울: 대한성서공회 (1987. 6.) 8-18 참조.

20) *The China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4 (November, December, 1883), 491-497. “*Hananim* is the term by which Coreans everywhere acknowledge the Ruler above and the supreme on earth. This term I have tested in every way with Coreans and my conviction is that the introduction of a foreign term would be a serious mistake.”

이수정은 브리지만 컬벳슨 역의 『新約』(1859) 본문에 한국식 한문 읽기 방식으로 조사와 어미를 붙여서, 한문을 아는 한국인들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였다.²²⁾ 한자어의 획을 빌어서 한국어 음을 나타내는 방식이었다. 루미스는 길맨 총무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수정이 한문 본문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어 표시하고 교정을 하였다고 했다.²³⁾ 이 말은 브리지만 컬벳슨 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이 성경의 한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면서 번역을 했다는 말이다. 마가복음 2:4의 “臥”, 3:27의 “刳”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히로 다까시는 마가복음 1:24 “唉”와 같은 표현이 일본어 『혼점성서』의 “噫”와 다른 점과 같은 미세한 본문상의 차이를 들어서, 이 책의 저본이 『혼점성서』는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²⁴⁾ 누가복음 2:1-4를 읽어보자.

이수정, 『新約聖書馬太傳』(1883) 눅 2:1-4

당시 ㄹ(에)有詔 ㄴ(이)由該撒亞古土督而出 ㄴ(하야)令天下人 ㄷ(으로)咸登籍 ㄴ(하니)居里扭 ㄹ(에)爲叙利亞方伯 ㄴ(하야)此籍 ㄴ(이)始行焉 ㄴ(이라)衆 ㄴ(이)往登籍 ㄴ(하고)各歸己邑 ㄴ(하니)約瑟 ㄴ(이)亦由加利利拿撒勒 ㄷ(으로)上猶太 ㄴ(하야)至大關之邑名伯利恒 ㄴ(하니)蓋彼屬大關宗族也 ㄴ(이라) (괄호 안의 한글 토는 筆者)

위 본문에서 현토 부분을 빼면 그대로 브리지만 컬벳슨 역 본문이 된다.

“ㄴ(이)”는 “是”의 마지막 획을 따서 쓰면서, 그 음을 차용한 것이다. “ㄹ(에)”는 “厓”의 머리만을 사용하면서, 그 음을 차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ㄴ(하고)”는 “爲古”에서 “爲”의 머리 부분과 “古(古)”의 아래 부분을 떼어다가 쓰면서, “爲”의 훈과 “古”의 음을 차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ㄴ(하야)”는 “爲也”에서

21) 루미스는 이 책의 영어 이름을 “Chinese-Corean New Testament”라고도 하고(H. Loomis to E. W. Gilman, 1884년 8월 15일자 편지,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352-353, “Corean Kuntan Testament”라고도 하였다(H. Loomis to E. W. Gilman, 1884년 9월 13일자 편지, 358-359). 루미스는 일본어 “訓點聖書”에서 쓴 이름인 “訓點(Kuntan)”을 사용하여, “한국어 혼점 신약”이라고 부른 것이다. *Chino-Corean Version*이라는 이름도 쓰고 있다.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304.

22) 루미스의 1883년 6월 21일 편지에는 이수정이 “Chino-Corean New Teatment” 번역을 완성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번역은 사도행전까지만 출판이 된다. 일본에서 1885년 이 후로 『혼점성경』이 출판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더 이상 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일본어 번역 성경과 한국어 번역 성경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ABS 쪽에서 알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314.

23)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304-305.

24) 廣剛(히로 다까시),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 박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2005), 71-78. 그의 연구에서는 개화기 한국어 성경과 여기에 영향을 미친 중국어 및 일본어 성경을 분석하여, 초기 성경 번역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爲”의 훈과 “也”의 음을 차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乙 又(으로)”는 “을(乙)”을 차용하여 “을/를/으”로 읽은 것이고, “又”는 “노(奴)”의 오른쪽 변을 차용하여 “로/노”로 음을 차용하여 읽은 것이다. “ㄷ”는 “니”의 아래 부분을 차용하여 쓰고 “니”로 음독하여 읽은 것이다. “ㅅ”는 “羅”의 약자 “ㄷ”에서 아래 부분을 따서 표기하고, “라”로 음을 차용한 것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方式으로 한자어를 차용하여 한국어어를 표현한 것은 한국어 표기법이 제정되기 오래 전부터 있었던 방법이다. 이러한 표기법의 사용은 6세기 경 또는 그 이전의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ㄴ(이)”는 주격조사이고, “ㄹ(에)”는 처소격조사이고, “乙 又(으로)”는 도구나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고, “ㄷ(니)”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이고, “ㄴ ㅅ(이오)”는 명사형 뒤에 붙는 연결어미이고, “ㅅ ㅅ(하고)”과 “ㅅ ㅅ(하야)”는 용언형 뒤에 붙는 연결어미이고, “ㄴ ㅅ(이라)”는 명사형 낱말 뒤에 붙는 종결어미이다.

4.4. 이수정의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1885)

이수정은 브리지만 컬벳슨 역을 바탕으로 현토한 신약의 번역을 완료하고,²⁵⁾ 루미스의 요청으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한다. 1883년 6월 21일자 편지에 이수정이 마가복음 번역을 시작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²⁶⁾

4.4.1.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1885)의 저본

이수정의 현토 성경의 저본이 브리지만 컬벳슨 역이고, 이 번역본이 미국성서공회가 지지한 한문 문리역 성경이었기 때문에, 미국성서공회의 일본 지부의 총무였던 루미스가 이수정에게 번역을 요청하면서 이 성경을 사용하도록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수정이 일본어에 능숙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일본어 성경도 참고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서 이 세 성경을 앞 부분 일부만 대조해 보았다. 이수정 역 첫 부분을 메이지 역과 브리지만 컬벳슨 역과 비교해 보았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한자어들만 비교하였다.

25) 루미스의 1883년 6월 21일 편지,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314.

26) 루미스가 길맨 박사에게 보낸 1885년 6월 17일자 편지에는 “I am happy to state that d revision of Rijutei’s basis of Kark made by Kim Ok Kun” 이라는 보고가 있다.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360-361. 이를 근거로 보면, 이제까지 이수정 역이라고 불렀던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를 이수정 김옥균 공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 (1885)	메이지 역 (1880)	브리지만 켈벗슨 역 (1859)
神의 子	神の子	神之子
耶蘇基督(예슈쓰크리슈도스)	イエス キリスト	耶蘇基督
福音	福音	福音
처음	始	始
預言者	預言者	預言
記錄	錄	所錄
	視	視哉
네앞히	面前	爾前
내 使者	我使	我使者
	遣	遣
	彼	彼
	前	前
네道	其道	爾道
	設	
	野	野
	呼	
	人の聲	人聲
	云	云
주의道	主の道	主道
	備	備
	其徑	其徑
	直	直

이 대조에서 비어 있는 이수정 역 부분은 한국어로 번역된 곳이다. “예언자”와 같은 낱말은 메이지 역의 영향으로 보인다. 메이지 역을 참고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기록”과 같이 독자적인 한자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중국어 성경의 한자어를 받아들이고 있다. 대표역본과 브리지만 켈벗슨 역이 명백하게 차이를 보이는 마가복음 1:2 본문을 이수정 역과 비교해 보면, 이수정 역이 대표역본과는 다르고, 브리지만 켈벗슨 역과 같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표역본(1852): 先知載曰 我遣我使 在爾前 備爾道

브리지만 켈벗슨 역(1859): 如在預言所錄云 視哉我遣我使者於爾前以 備爾道

이수정역본(1885): 預言者(예언자)의 記錄(기록)한 바의 일너스되 보라 너나의 使者를 네 압히 보니여 써 네 道(도)를 갖추게 흐리라 흐 말과 꺾치

4.4.2.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1885)의 번역 특징

메이지 역에 비해서 이수정 역이 현저하게 많은 부분을 한국어로 바꾸어 번역하고 있다. 이수정의 번역이 일본어 메이지 역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한자어를 벗어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문 번역체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책의 이름에도 “언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유교 경전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 사용했던 한국어 번역문에 붙이던 문체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4장 1절의 본문은 특히 언해체의 문체적 특징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다.

耶蘇(예수쓰) | 다시海濱(해빈)의셔教誨(교회)흐실시群衆(군중)이잇서集(집)흐야就(취)흐니彼(피)비의올나海(해)의浮(부)흐야坐(좌)흐고衆(중)은海(히)를沿(연)흐야岸(안)에立(입)흐니

그런가 하면 다음 10장 14절처럼 거의 순한 한국어로 번역된 부분도 보인다.

耶蘇(예수쓰) | 흐번보시더니깃거아니흐스일너가로스되어린아히나의게오게가만두고禁(금)치말나더지神(신)의國(국)에잇는者(자)는正(정)히이스람갓트니

4.4.3.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1885)의 고유명사 음역 특징

아래 몇 곳의 음역문자들을 대조해 보았다.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 (1885)	메이지 역 (1880)	브리지만 켈벗슨 역 (1859)
예슈쓰크리슈도스(耶蘇基督)	イエスキリスト	耶蘇基督
요한네쓰(約翰)	ヨハエ	約翰
밧테슈마(세례)	バプテスマ	세례
유대아(猶大)	ユダヤ	猶大
예루살넴(耶路撒冷)	エルサレマ	耶路撒冷

고유명사 음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자음의 음독도 아니고, 일본어 음

역의 번역도 아니고, 한자어를 적어주고, 원음을 따라 음역한 음가를 한국어로 나란히 음역해 주고 있다.²⁷⁾

5. 『성경 개역』(1938)에 미친 일본어 성경의 영향

위에서 보았듯이 개인 번역이 먼저 나오고, 이것들에 이어 선교사들 중심의 위원회 번역이 나오는데, 대한성서공회가 설립되면서(1895)부터는 이 위원회 번역은 대한성서공회의 공식 번역의 기초가 된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1900년의 신약과 1911년의 구약이다. 1911년에 신구약이 합본되어 최초의 한국어 완역 성경 전서가 나온다. 그 후 이것이 1938년에 개정되어 『성경 개역』이 된다. 구역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어 문어역의 영향을 받는다.

5.1. 『성경 개역』(1938)에 보이는 일본어 한자

1911년에 구역이 완역되고 곧바로 번역위원회는 해체되고 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1938년에 『성경 개역』이 출간되기 직전까지 활동한다. 필자는 여러 기회에 구역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관심을 가졌었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개정된 내용을 살피기도 했다. 여기에서 우선 발견한 것은, 1) 구역의 문체가 『성경 개역』보다 훨씬 한국어답다는 것, 『성경 개역』에서는 번역어투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2) 구역이 토박이 말 표현이 많은데 비해 『성경 개역』에는 한자어가 갑자기 많아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런 한자어 중에는 중국어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한국어 사전에도 없는 단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특히 일본식 한자어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면박”이라는 낱말이다. 『개역』의 『간이국한문』(1964) 판에는 “面帕”이라고 쓰여 있고, 『개역』의 한글 전용판에는 같은 낱말이 “면박”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다. 1) 우선 한자 ‘帕’는 ‘머리 띠 파’로서 한국어로는 “파”라고 읽는 글자다. 중국어로는 “파(pa)”, 혹은 “모(mo)”라고 읽는다. 2) 한국어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단어다. 3) 한국어 성경의 저본인 중국어 대표역본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 4) 중국어 사전에도 “面帕”

27) 루미스는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번역하면서 녹스 목사(Rev. Mr. Knox)와 야스카와 목사(Rev. Mr. Yasukawa)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번역의 정확성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314. 특히 이러한 인명과 지명 등의 음역은 야스카와 목사의 도움을 받았다.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147.

이 올라 있지 않다. 5) 일본어 문어역 성경에는 이 단어가 나온다.

한국어 『개역』 창세기 24:65; 38:14; 38:19; 이사야 3:19; 25:7; 47:2 등 6곳에 나오는 “면박”(面帕)이 이사야 3:19; 25:7; 47:2 등 세 곳에서 일본어 문어역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한 가지 단서만 하더라도 『성경 개역』에 일본어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었다. 더욱이 1912-1938년 개정 기간이 바로 일제 점령기였다는 사실도 일본어역의 영향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였다.

그 후 중국어 한자성경과 한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을 다 다룰 수 있는 한 재일교포 출신 학생이 서울로 유학을 온 일이 있었는데, 필자는 그 학생에게 중국어 문리역과 일본어 메이지역과 한국어 『성경 개역』을 비교하여 연구하도록 한 일이 있다.²⁸⁾ 필자는 여기에서 그 연구를 지도하면서 그에게 주었던 연구 과제의 일부 결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사야 47:2에서 중국어 대표역본을 보면, “去爾帕”라고 하였다. 한국어 구역은 “장옷을 버스며”라고 하였고, 한국어 『개역』은 “面帕를 벗으며”라고 하였고, 일본어 문어역은 “面帕를 とりさり”라고 하였다. 브리지만 컬벳슨 역은 대표역본과 같이 “去爾帕”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일본어 문어역과 한국어 『개역』에서 일치하고 있는 용어들을 적지 않게 발견했고, 영향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5.2. 대표역본, 『개역』, 일본어 문어역의 비교

다음 표는 김사요(金佐垈)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장/절	중국 代表譯本 (1854)	제임스왕역 (1611)	구역(1911)	개역(1938)	일본 문어역 (1887)
1)	창 4:23	傷	wounding	상(傷)	상(創傷)	創傷
	창 7:15	血氣	the breath of life	혈기(血氣)	기식(氣息)	氣息
	창 42:4	害	mischief	해(害)	재난(災難)	災難
	창 43:27	問安	be well	문안(問安)	안부(安否)	安否

28) 김사요(金佐垈), “일본어 번역 성서가 한국어 개역 성서에 끼친 영향-창세기를 중심으로-”, 석사 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2000.

	장/절	중국 代表譯本 (1854)	제임스왕역 (1611)	구역(1911)	개역(1938)	일본 문어역 (1887)
2)	창 18:8	乳	milk	소젖(소젓)	우유(牛乳)	牛乳
	창 19:16	矜恤	being merciful unto	불쌍히 녀이 시논	인자(仁慈)	仁慈
	창 29:15	何值	wages	삭	보수(報酬)	報酬
	창 43:18	執	be brought in	잡아	억류(抑留)	抑留
3)	창 12:10	大饑	famine	흉년(凶年)	기근(饑饉)	饑饉
	창 20:8	僕衆	servants	신하(臣下)	신복(臣僕)	臣僕
	창 26:28	立誓	covenant	言約	계약(契約)	契約
	창 34:24	出自	went out of	來往	출입(出入)	出入
	창 39:21	司獄	the keeper of the prison	獄司長	전옥(典獄)	典獄
	창 50:2	醫士	the physicians	의원(醫員)	의사(醫師)	醫師
	창 17:14	割	circumcised	할례(割禮)를	양피(陽皮)	陽の皮
4)	창 6:4	丈夫	giants	장부(丈夫)	네펠림	ネピリム

1) 한국어 구역이 중국어 역본과 같은 한자어를 사용했으나 한국어 『개역』에 와서 이와 달리 일본어 문어역과 같은 한자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고, 2) 한국어 구역이 한국어 고유어(토박이말)로 번역했으나, 『성경 개역』이 이와 달리 하면서 일본어 문어역과 같아진 경우도 있고, 3) 한국어 구역에서 중국어 대표역본과 다른 한자어를 사용했으나, 개역 과정에서 일본어 문어역과 동일해진 경우도 있고, 4) 구역에서는 중국어 역본의 한자 번역어를 채용하여 번역하였지만, 『개역』에서는 일본어 문어역에서 음역한 것과 같이 음역을 해서 번역한 경우도 있다.²⁹⁾

이 논문에서는 창세기에서 한국어 『개역』과 일본어 문어역의 어휘가 서로 같은 구절을 59개 추출하여 비교하였고, 한국어 『개역』이 일본어 번역 성서를 저본으로 삼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인 번역자들이 일본어 번역 성서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한국어 『개역』이 일본어 번역 성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

29) 참조, 김사요(金佐堡), “일본어 번역 聖書가 한국어 개역 聖書에 끼친 영향-創世記를 中心으로-”

을 밝히고 있다.

6. 한·중·일이 함께 풀어야 할 용어들

한·중·일의 성경 번역의 역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번역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인 “신” 또는 “상제”이고, 이와 함께 문제가 되는 번역어가 ‘성신/성령’이다. 이 이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다음 세대의 번역어로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6.1. 신, 상제, 천주

중국어 성서 번역사에서 중요한 논쟁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견해차였다. 가톨릭 쪽에서는 ‘천주’를 사용하였고, 영국성서공회 쪽의 선교사들은 ‘상제’를 사용하였고, 미국성서공회 쪽에서는 ‘신’을 사용하였다.³⁰⁾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 좀 쉽게 개념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천상의 ‘상제’에 대해서는 지상의 최고 통치자이며 최고 권력자인 ‘황제’를 대응 개념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천상의 ‘신’에 대해서는 지상의 ‘인’을 대응 개념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비해 보면 두 언어가 지니고 있는 어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황제’가 실제적인 것처럼 ‘상제’도 실제적인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말이다. ‘황제’에 대비되는 ‘상제’에 비해서는 ‘인’에 대비되는 ‘신’이 훨씬 폭이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순수 한국어를 찾아서 사용하였고, 한자어로 쓸 때는 “신”을 사용하였다. 일본에서는 ‘신’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면서, ‘가미’로 일본식으로 훈독을 하였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모두 ‘신학대학’은 있지만, ‘상제학대학’은 없다. 한국에서는 ‘신학’ 또는 ‘신학대학’ 등의 한자어 복합어 표기에서는 ‘신’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어 이름으로는 ‘하느님’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신’이라고 한자어를 쓰면서 ‘かみ가미’로 훈독을 한 것은 일본의 형편에 맞는 선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많은 다른 말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천주”라는 말도 가톨릭 쪽에서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신의 이름으로 사용했던 말이다. 이 말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말이 아니라, 새롭게 만든 말이다.

30) <http://www.biblesociety-tw.org/bmag/bmag17/God%20and%20god.htm> 대만성경공회 홈페이지.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천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쓴 것은 의미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꽤 유용해 보이지만, 한자문화권에서 원래 사용되던 말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신조어로 의미 전달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신조어가 그 언어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실제적인 경험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은 언어는 그 언어가 지칭하는 대상을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의 “천주”는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번역어다. 나름대로 참 좋은 번역어라고 할 수 있지만, “천주”가 가슴으로 체험되고 경험되려면,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하느님”보다는 독자들의 가슴으로부터 훨씬 멀리 있는 말이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말을 사용할 때의 어려움은, 그 이름과 개념 위에 기독교의 신 개념을 부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조어를 사용할 때 생기는 어려움은, 전혀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 전체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점이고, 개념을 익힌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그 개념의 이름이 체험되고 육화되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까지도 그 개념이 체험되거나 육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신조어를 쓰는 일은 그만큼 큰 어려움을 수반한다.

“우주의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신”으로 이해되는 “조물주”라는 말도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로는 가끔 사용되는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 가운데 어느 한 쪽만을 부각시킨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체성에 이르는 부족함이 있다. 한국에서는 “상제”와 “참신”과 “천주”와 순수 한국어인 “하느님”이 서로 경쟁하며 사용되다가 “하나님으로 통일이 되었다. 한국인들에게 “상제”라는 한자어도 일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두루 사용되는 말은 아니다. 또 “황제”라는 말을 알고는 있지만 실생활로부터 멀리 있는 것처럼, “상제”라는 말도 알고는 있지만 실생활로부터 멀리 있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개념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 경험되지는 않는 말이다.

“하늘[hana]l(heaven) + 님[nim](Lord, prince)”으로부터 온 “하느님”은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인생의 길흉화복을 주관하기도 하는 초월적인 절대 주권자로 인식되는 대상이며, 조선인들이 의미로만 이해하는 말이 아니라 조선인들의 체험 세계 안에 깊이 스며 있는 말이다. 조선인들은 흔히 삶 속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고 부른다. 조선인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하느님”이 바로 기독교에서 알리고자 하는 창조주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6.2. 신펙, 성신, 성령

중국어 성서 번역에서 “신”의 이름의 번역은 “성신/성령”의 번역과 관련되어 있다. “성령”의 경우, 마태복음 4:1에서 모리슨역은 바쎄역의 “신펙”(“하느님의 바람”)을 그대로 따랐으나, 골로새서 1:8에서는 바쎄역의 “신펙”(“바람”)을 따르지 않고 “성신”으로 옮겼다. 바쎄역은 누가복음 4:1-11에서 “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반면, 모리슨역은 마태복음 3:11과 28:19에서는 “성신펙”(“거룩한 바람”)으로 마태복음 3:16에서는 “神之神風”으로 옮겼다. 모리슨역은 골로새서 2:5에서는 “영”을 누가복음 24:39에서는 “신”을 사용하였다.³¹⁾

그리스어 “프뉴마(πνεῦμα)”의 번역어로 “성신”을 쓰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신”은 “神之聖神”이 되는데, 이 경우 하나님을 뜻하는 “神”과 Holy Spirit을 뜻하는 “성신”의 ‘神’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었다. “上帝之聖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달리 표기하는 방법이 있었고, “神之聖靈”으로, Holy Spirit을 “성령”으로 번역하는 방법이 있었다.

代表譯本 롬 8:9 浸假上帝之神在爾心
브리지만 쉘벗슨 역 마 3:16 神之靈....

“프뉴마(πνεῦμα)”의 한국어 번역을 “성신(성신)”(눅 1:15)으로 한 것은 당시 중국어 성경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 성경에서는 신의 이름을 “상제”로 번역할 때에는 “성신”이라는 말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신”으로 번역할 때에는 마태복음 12:28과 같은 본문이 문제가 된다. “神之神”이라 하면 어떤 말이 하나님의 이름인지, 어떤 말이 “프뉴마(πνεῦμα)”의 번역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신”으로 번역한 중국어 성경에서는 *holy spirit*은 “성령(성령)”으로 번역하였다. 브리지만 쉘벗슨 역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수정 『현토마가전』에서는 “성령”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수정이 사용했던 문리역 본문이 브리지만 쉘벗슨 역이었고, 브리지만은 “신”과 “성령”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어 성경 번역에서 이 말은 1900년의 『신약전서』와 1911년의 『성경전서』에 이르기까지 “성신”으로 번역된다. 1938년 『성경 개역』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으로 유지되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개정된다. 이는 다른 곳의 본문과 함께 고찰할 때에 일본어 성경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²⁾

31)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왕대일 역음,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주석과 성서 번역』(서울: 기독교서회, 2002), 427-429.

6.3. 넘논절, 유월절

출애굽기 12:1-14에 유월절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13절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설명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을 치지 않고 “넘어간” 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절기”이다. 히브리어 “페사”(פֶּסַח)를 영어에서 “passover”라고 한 것이나, 중국어에서 “踰越節(유월절)”(출 12:11)로 번역한 것은 번역상 아무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다.

일본어 성경은 이 말을 “過越(すぎこし)と除酵(じよかう)との祭(よつり)(막 14:1)로 번역하였다. 일본어 성경의 장점은 훈독을 붙여 주었다는 데 있다. 이는 일본이 한자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일본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한자어를 사용하더라도 훈을 옆에 병기해 주면,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 된다.

로스 역은 이 말을 “넘논절”로 번역하여, 뜻을 쉽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뜻을 새겨서 번역하였다. 이 말은 한국어로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이다. 이수정은 “踰越節(유월절)”로 번역하여,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옆에 한국어 읽기를 병기해서, 한자어를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수정의 번역은 한자어를 잘 모르는 한국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번역이다. 어느 정도의 지식층을 염두에 둔 번역이거나, 본인이 이미 한자어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자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번역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음독을 하는 방식으로 한자어를 받아들였고, 중국 역사 속에서 발음되었던 어느 시기의 음가를 한국어 음운체계에 맞게 받아들여 한자어를 읽었다. 그러므로 한자어 음가를 병기해 주어서 한국인들이 그 소리를 읽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자어를 모르면 결국 뜻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어 번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월절”은 아직 한국어로 번역이 되지 않은 용어라고 할 수 있다.

6.4. Baptim레, 세레

로스 역에서는 “뱍티조(βαπτίζω)”를 “뱍뽀레”로 음역하고 있다. 이는 “사바톤(σάββατον)”을 “사뽀일”로 음역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수정은 “세레(뱍테슈마)”라고 하여, 한자어 번역어를 그대로 채택하면서 원어를 음역하여 병기하

32) 1917년에 개정된 『大正譯新約』도 “성령”을 쓰고 있다.

여 주었다. 일본어 문어역은 이 말을 “バプチスム”라고 음역하였다.

6.5. 병, 떡, パン(빵)

로스 역(1887)에서는 그리스어 “아르토스”(ἄρτος)의 번역어로 “밥”을 번역어로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적인 변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수정 역에서는 “사람들이 다시 集(집)혀야 그 餅(병)을 食(식)하기에 겨를치 못하게 하니”(막 3:20)로 번역하여 한자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다. 1911년 구역 『성경전서』에서는 “씩 먹을 겨를도 업는지라”로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한자어 “餅”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 본문은 1938년 『성경 개역』에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로 번역되었고, 이는 1961년의 『개역한글판』과 1998년의 『개역개정판』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밥 먹다”와 “떡 먹다”와 “식사하다”로 번역한 그리스어 “아르톤 파게인”(ἄρτον φαγεῖν)은 KJV에서는 “eat bread”로 번역했던 말이다. 당시의 조선에는 이 말에 해당하는 음식이 없었으므로, 한국인들이 주식으로 먹었던 “밥”으로 번역했다가, 다시 쌀을 가공해서 만든 음식인 “떡”으로 번역했다가, 현대어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식사”로 개정하였다. “식사”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사용되었던 말이 아니다. 일본의 영향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 일본 한자어가 들어온 경우라고 볼 수 있는 말이다. “밥 먹다”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이지만, 한국에는 손윗사람에게 이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이 말을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식사하다”는 이런 불편을 피하면서 중립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현대 한국어로 새로 번역된 『성경전서 새번역』에서는 이 말을 “나는 생명의 빵이다”로 번역했다. 새로운 번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번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말은 “밥”으로 번역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어 성경의 “餅(병)”은 오늘날 현대 중국어 번역에서 “음식”으로 바뀌었다.³³⁾ 일본어 성경은 메이지역(1880)에서부터 “パン(빵)”으로 번역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중국어 성경에서 “餅”으로 번역한 것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문화적 변용이 개입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7. 맺는 말

일본과 중국과 한국은 상당히 많은 수의 한자어를 공유하고 있다. 번역어의 선

33) 『聖經 現代中文譯本』(香港: 聖經公會, 1984).

택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자어에 바탕을 둔 중요한 성경의 용어들을 어떻게 새롭게 번역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특히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과제가 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준비법이 있는 언어여서, 높임이 없는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높임이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³⁴⁾ 예수와 주변 인물들의 대화를 어떤 수준의 준비법을 적용할 것인지도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고, 보아스와 룻의 대화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대우 체계를 적용할지도 수용 언어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의 연구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Keyword)

대표역본, 브리지만 킬벗슨 역, 일본어 문어역, 이수정 역, 『성경 개역』

Delegates' Version, Bridgman and Culbertson Version, Meiji Version, Soo-Jeong Lee's Version, *Korean Revised Version*

34) Young-Jin Min (2001),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in Bible Translation of Honorific Language: The Case of Honorifics in Three Korean Translations," ATCON paper.

<참고문헌>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61.

한글학회, 『큰사전』, 서울: 을유문화사, 1957.

The New Testament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Translated out of the Greek: Being the Version Set Forth A.D. 1611, Compared with the Most Ancient Authorities and Revised, A.D. 1881, C. J. Ellicott, et 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81.

H KAINH DIAQHKH.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zed Version, Edwin Palmer, Oxford: Clarendon Press, 1881.

『舊新約全書(Classical Bible)』, Bridgeman and Culbertson's Version, American Bible Society, 福州美華書局活版, 1896.

『文理貫珠 舊新約聖書(Delegates Version)』, Shanghai: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20.

『聖經 現代中文譯本』, 香港: 聖經公會, 1984.

廣剛(히로 다카시),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5.

김사요(金佐堡), “일본어 번역 성서가 한국어 개역 성서에 끼친 영향 -창세기를 중심으로-,” 석사 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2000.

門脇 清, 大柴 恒, 『日本語聖書翻譯史』, 東京: 新教出版社, 1983.

서수량, “초기 한글 성경 『예수성교전서』의 중국어 대본에 대한 연구,” 석사논문,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2002.

육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이만열, 육성득, 류대영, 김승태,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왕대일 편,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주석과 성서 번역』, 서울: 기독교서회, 2002.

이환진, 전무용, 서원석, “예수성교전서,” 『성서한국』 33:1, 서울: 대한성서공회, 1987. 6.

장재춘,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 취락 및 주거에 관한 조사연구』,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5.

海老澤有道, 『日本の 聖書-聖書和譯の歴史』, 講談社學術文庫, 東京: 株式會社

講談社, 1989.

許牧世, 『經與譯經』, 香港: 기독교문예출판사, 1983.

Min, Young-Jin,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in Bible Translation of Honorific Language: The Case of Honorifics in Three Korean Translations," ATCON paper, 2001.

Ogden, Graham, "Translations of the Bible in Asia," Roger Omanson, ed., *Discover the Bible: A Manual for Biblical Studies*, Colombia: United Bible Societies, 2001.

Zetzsche, Jost Oliver, *The Bible in China: The History of the Union Version or The Culmination of Protestant Missionary Bible Translation in China*, Nettetal: Steyler Verl., 1999.

The China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4, November, December, 1883.

The Panoramic Bible, Tokyo: JBS, 2005, "The Dead See Scrolls and the World of the Bible," The Tokyo Great Bible Exhibition Executive Committee, 2000.

<Abstract>

Influences of Chinese and Japanese Versions on Early Korean Bible Translations

Dr. Young-Jin Min & Moo-Yong Jeon

As indicated in the title, this paper deals with the influences of the Chinese Bible translation on early Korean Bible translation work, and the influences of the Japanese Bible translation on its revision process. Early Bible translations into the Korean language were carried out in China on the one hand and in Japan on the other, and then brought into Korea. These translations are unique in the sense that they have not been translated by officially organized committees but by individuals as private translations. These early private translations show that the individual translators have deeply contemplated upon selecting appropriate words to correspond with special terms of the OT and the NT, such as *theos/elohim* (God), *pneuma/ruah* (spirit), *baptisma* (baptism), *pesah* (passover) and others.

Various attempts were made to assign a Korean word for God and this paper deals with how a Korean word of “Hanûnim/Hananim” was appropriated to refer to God. Recent studies reveal that revisors of the *Korean Bible* (1911) have referred to Japanese Bible translations for the revision work they carried out from 1912 to 1937, and the extent of influence from the Japanese Bible translations were clarified in this paper.